

관광안내전화 1330

인천종합관광안내소 032-832-3031

인천투어 <http://itour.incheon.go.kr>

인천관광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discoverincheon>



인천평화관광 가이드북

평화로운 여행은
인천이지

평화. Over the PLZ
인천을 너머 Peace and Life Zone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관광공사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너무 가까이 보이는 북한! 어디선가 들려오는 평화의 노래 인천 강화도·교동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통해 평화관광이 가능한 인천
강화도와 교동도는 손에 잡힐 듯 북한 가까이에 있다.
탁 트인 바다 너머 북녘을 바라보고
남북이 하나되는 화해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
우리는 지금
통일을 기원하며
인천으로 평화여행을 떠난다!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육안으로 본 북한의 모습.
바로 앞에 개풍군 유정동과 탄동 마을이 있다.
빼어난 산세로 경기 5악이라 불리는 송악산이 아스라이 보인다.



원래 우리는 같은 동네였어! 강화도



분단이 되기 전, 강화도는 북한과 교류가 활발하던 곳이었다.
예성강을 통해 교역선이 오갔고, 동네 사람들은 나룻배를 타고
남북을 자유롭게 오갔다. 개성인삼이 강화도로 와서 유명한 강화
인삼이 되었고, 개성의 방직 기술자들이 강화에 방직 공장을 세우
기도 하였다. 지금도 강화도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강화여행의 첫 출발지 01 강화관광플랫폼

강화의 예스러움이 물씬 느껴진다. 고려청자를 모티브로 한 안내
데스크, 강화 소창이 느껴지는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고려
의상을 입어보고, 강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VR 체험은 색다른
재미를 준다. 방문자에게는 강화도 음식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30 강화중앙시장 B동 3층
🕒 10:00~20:00 ☎ 032-934-7500



01

널리 인간을
배불리 하라

강화중앙시장 청년물 개벽2333

강화도에서 젊은 에너지가 집약된 곳이라면, 단연
2017년 4월에 문을 연 청년물 개벽2333이다.
15개의 독특한 맛을 뽐내는 음식점과 5개의 액세
서리·가족 공방이 있다. 어느 한 군데도 빠트릴 수
없을 만큼 개성이 넘친다.

🕒 11:00~21:00 ☎ 032-933-0465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 성당 03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예배당 안에 들어서면 켜켜이 쌓인 시간의
흐름이 느껴진다. 서구 기독교와 강화의 역사
문화가 어우러져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
었다. 외부는 전통 한옥양식이지만 내부는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졌다. 1900년 축성
되었으며, 지금도 매주 예배가 진행된다.

📍 강화군 강화읍 관청길27번길 10
☎ 032-934-6171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424호)



03

02



강화도령 철종의 어릴 적 추억 02 용흥궁

조선 제25대 왕인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19세까지 이곳
에서 살았다. 원래는 초가였으나 보위에 오른 후 건물을 새로
지었다. 눈에 쏙 들어오는 아담한 기와집과 소담스러운 담장
사이로 핀 꽃들이 방문자를 반긴다.

📍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1번길 16-1

옛 고려의 도읍이었던 강화

04 고려궁지

고려는 몽골의 침입에 맞서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로 옮기고 이곳에 궁궐을 지었다. 아쉽게도 당시의 궁궐과 성곽은 몽골과의 화친 조건으로 모두 파괴되었다. 조선 시대에 지어진 행궁, 유수부 동헌, 외규장각(2003년 복원)이 남아 있다. 1964년 사적 제133호로 지정되었다.

- 📍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
- 🕒 09:00~18:00 ☎ 032-930-3515



신문리미술관으로 재탄생

06 조양방직

1933년 국내 자본으로 세워진 조양방직은 강화 섬유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다. 1990년대에 문을 닫고 오래도록 방치된 건물이 신문리미술관 카페로 리모델링되었다. 커피 한 잔 값이면, 1930년 당시의 건축물 속으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 📍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587
- ☎ 032-933-2192



06

07

일제시대 개성의 집을 그대로

07 솔정리 고씨 가옥

1941년 인삼무역을 하던 고대섭 씨가 개성에서 본 집이 마음에 들어 그 집과 똑같이 만들었다. 황해도에서 자재를 실어올 정도로 개성의 맛을 그대로 살렸다. 전통적인 한옥에 일본식 건축 양식이 더해져 이채롭다. 향후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 예정이다.

- 📍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674번길 23-4
- 🌟 인천유형문화재 제60호



09

2.3km 거리에서 평화를 그리다

09 강화평화전망대

전망대에 서면 개풍군 해창리와 삼달리가 한 눈에 펼쳐져 있다. 때론 먹먹하게 때론 편안하게 북한 땅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화통일을 기원하게 된다. 통일염원소에서 소망을 적고 야외로 내려가면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와 야외망배단이 있다.

- 📍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797
- 🕒 09:00~18:00
- ☎ 032-930-7062~3



북한을 바라보며 휴식하다

08 연미정

강화 도심을 벗어나 연미정으로 가다보면 어느 순간 철조망이 나타난다. 분단의 현실과 화해 분위기가 공존해 있다. 500년 수령의 느티나무 아래 고즈넉한 연미정이 있다. 바다 건너 작은 섬 유도가 있고, 그 너머로 개풍군 하조강리가 보인다.

- 📍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242
- 🌟 2008년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해제



08

TIP 민간인통제선과 차량출입증

강화평화전망대와 교동도는 민간인통제선 너머에 있다. 그만큼 북한과 가깝다는 뜻이다. 군인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면, 차량출입증을 발급해준다. 약간 긴장되지만,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에 색다른 느낌을 준다.



강화도 먹거리

전국갈비

몽고에 항쟁하던 시절, 고려 왕실에 진상할 음식이 필요한 데서 유래한다. 돼지갈비에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시원하게 끓여내는 맛이 일품이다. 강화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향토음식





우리 고향이 바로 저긴데! 교동도

교동도 사람들의 고향은 대부분 황해도 연백군이다. 전쟁을 피해 교동도에 정착하였다. 곧 통일이 될 줄 알았고, 연백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렸다. 그렇게 열기설기 집을 짓고 고향사람들과 모여 살았다. 고향 연백시장을 재현해 생계를 꾸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대룡시장으로 이어졌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날, 교동도 사람들은 복讖을 바라보며, 고향 연백군을 발로 밟는 날을 꿈꾸었다.

01

교동도 여행의 출발이 되는 관광안내소 01 교동제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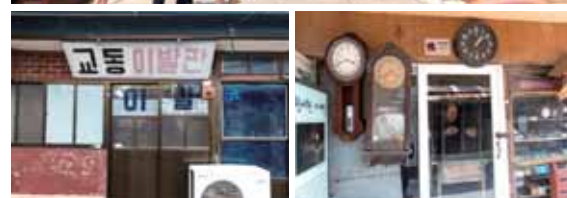
강화도와 연결된 교동대교를 건너 조금 달리면 교동 제비집이 나온다. 교동도에는 제비가 많다.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 ‘교동제비집’을 만들었다. 아담한 2층짜리 관광안내소지만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었다. 주인공이 되어 직접 교동신문을 발행하고, 교동에서 연백까지 가상의 평화다리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도 있다. 2층은 카페테리아와 전시 공간이다.

📍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20-1

🕒 10:00~18:00 ☎ 032-934-1000



02



간판에서 만나는 소박한 과거의 기억 02 대룡시장

60~70년대 풍경이 남아 있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픈 한국사가 어려 있다. 남북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둘러보면 대룡시장의 면면이 정겹게 느껴진다. 연백에서 온 이발사가 운영하는 이발관, 여든이 훨씬 넘은 어르신이 지키는 약방, 옛날에 맛보았던 쌍화차를 파는 다방까지, 시장의 모습은 과거의 시간을 고스란히 불러오는 듯 하다.

📍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35



추억을 남기고 싶은 이들의
핫 플레이스

03 교동스튜디오

아담한 스튜디오에 들어서면 수십 벌의 교복과 교련복이 나란히 걸려 있다. 덩기머리 하고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시간은 30~40년 전 학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입소문이 퍼져 이미 전국에서 찾는 교동도 명소가 되었다.

📍 강화군 교동면 대룡안길54번길 32
🕒 10:00~18:00 ☎ 010-5344-4402



05

06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

04 교동향교

과거 교동도는 서울과 개성의 해상 관문으로, 교동향교는 1127년 세워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 교육기관인 향교이다. 문성공 안향이 원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공자와 주자 상을 가져와 이곳에 모심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교동향교 주변으로 조선 인조7년(1629)에 축성한 교동읍성이 있다.

📍 강화군 교동남로 229-49



고려말기 대학자 목은 이색이
즐거 찾던 사찰

05 화개사

화개산 아래 자리 잡은 작고 아담한 절이다. 고려 때 창건되었는데, 그 연대는 정확치 않다. 고려 왕조를 끝까지 지켰던 위대한 정치가 이색이 독서하던 곳으로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될 정도로 유서 깊은 사찰이다.

📍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229-9

실향의 아픔을 바다 너머로
06 망향대

분단 이전에 교동도와 연백군은 같은 생활권이였다. 그만큼 왕래가 잦았다. 전쟁으로 교동도에 피난 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며, 연백군이 마주 보이는 곳에 비를 세웠다. 매년 복녘을 바라보며 제사를 올린다.

📍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산 70



교동도
먹거리

추억의 먹거리

대룡시장을 거닐다 보면, 찰호떡, 핫도그, 파배기, 쫄면 등 추억의 먹거리가 여행자를 반긴다.



바닷길 너머 아련히 보이는 북녘 서해 5도 **백령도·대청도·연평도**

인천은 섬이 많은 해양도시다.

168개의 섬 중에

북한과 마주보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서해5도,
그곳에 평화의 바람이 분다.

긴장과 대립 대신 남북의 화해가 석양빛처럼 비쳐온다.

섬이 주는 특별한 즐거움을 누리며

북한이 보이는 서해5도로 바다 여행을 떠난다.



서해 최북단의 보석 같은 섬 **백령도**

백령도하면 항상 두 가지가 생각난다. 서해 최북단으로 북한이 바로 건너 보인다는 것과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광이다. 비록 북방한계선 너머지만 효녀 심청에서 유래된 인당수도 백령도와 가까운 곳에 있다. 더 이상 북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일까? 백령도에만 가면, 북쪽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게 된다.

01



세계에서 두 곳뿐인 천연 활주로 해변

01 **사곶해수욕장**

모래 위로 버스가 달릴 만큼, 단단한 모래해변이 있는 곳, 천연활주로로 쓰일 만큼 곱고 탄탄한 모래가 3km 가까이 펼쳐져 있다. 물이 맑고 수심이 낮아 물놀이하기에도 좋다. 이탈리아 나폴리에도 비슷한 곳이 있지만, 규모로는 백령도가 세계 제일이다.

📍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413-2

🌟 천연기념물 제391호



02

좌르르~

콩돌의 노랫소리 들리는

02 콩돌 해변

‘자각, 자각’ 해변을 걸을 때마다 발 밑으로 매끈한 돌이 밟힌다. 콩돌해변은 2km 해안 전체가 동글동글한 자갈로 덮여 있다. 맨발로 걷거나 찜질하듯 누워 쉴 수 있다.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천연기념물 제392호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시간의 흐름마저 잊게 만든다.

📍 웅진군 백령면 남포리 26-3



우리나라 교회 역사의 시작

04 중화동교회·백령성당

중화동교회는 황해도에 처음 소래교회가 설립된 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다(1898년). 교회 옆 백령 기독교역사관에서, 초기 중화동교회의 모습과 선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백령성당에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일부가 모셔져 있다. 백령도 인근에서 진행된 그의 선교활동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 웅진군 백령면 중화길 230-7

☎ 032-836-0277



03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신비로움

03 용트림바위

두 개의 바위가 비틀리듯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형상이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하기에 신비로움까지 느껴진다.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어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며 쉬기에 좋다.

용트림바위 맞은편에는 고생대 말이나 중생대 초 지각변동으로 생긴 남포리 습곡구조(천연기념물 507호)가 있다.

📍 웅진군 백령면 남포리

04



북한 장산곶이 한 눈에



06 심청각

심청각은 심청이가 몸을 던진 인당수와 심청이가 환생한 연봉바위가 보이는 곳에 건립되었다.

북한이 잘 보이기에 망향의 아픔을 가진 실향민들이 많이 찾는다.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방한계선을 따라 조업하던 중국어선 수가 감소하였다고 현지인들은 말한다.

📍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

☎ 032-999-2210



06

효녀 심청像

05

신의 손끝으로 빛은
바다 위 절경

05 두무진

오랜 시간이 만들어 놓은 해안 절경과 물 위에 떠 있는 기암괴석을 마주하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온다. 유람선을 타면 두무진의 전경을 한 눈에, 도보를 이용하면 두무진의 속살을 속속들이 마주하게 된다. 두무진에 올라서면 북한 땅이 보인다.

📍 웅진군 백령면 연화리

★ 국가지정 명승 제8호

백령도
먹거리

사곶냉면

백령도 냉면은 북한 황해도식 냉면으로 메밀을 사용한다. 진하게 육수를 우려내지만, 첫 입맛은 약간 심심하다. 백령도 까나리액젓으로 간을 하고나면 육수의 담백함, 구수함, 감칠맛이 진하게 느껴진다.





청(靑)! 하늘과 바다 그리고 태고의 신비 대청도·소청도

흔히 서해의 섬을 ‘누워 쉬는 형상’이라 말한다. 섬이 어깨에서 허리, 엉덩이로 이어지듯 완만한 능선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대청도와 소청도는 섬 전체에서 힘이 느껴진다. 서해의 다른 섬에 비해 조금은 험준하다. 그 때문일까? 태고의 신비를 담은 지질학적 절경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하늘과 바다, 그것을 아련하게 경계 짓는 해안선은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고 곱다.

대청도

섬 한 가운데서 찾은 모래사막 01 옥죽동 모래사막

과거 ‘모래 서말은 먹어야 시집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에 모래가 많았다. 주민이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기에, 2000년까지 해안가에 방풍 소나무를 심었다. 그 후 모래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섬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모래사막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다. 낙타 조형물 뒤로 사막이 더 넓게 펼쳐져 있다.

01

02



단단하고 부드러운 서해 최고의 모래 해변 03 지두리해변

해안의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 모래는 곱고 단단하며, 수심은 얇고 물은 더할 나위 없이 맑다. 대청도에서 해수욕 하기에 단연 최고의 장소이다. 농여해변처럼 태고의 신비를 담은 지질층과 물결무늬인 연흔을 만날 수 있다.



03



썰물 때면 하나되는 해변 02 농여해변·미아동해변

바다 물결이 조각하듯 남겨 놓은 연흔이 해변을 수놓았다. 수 만년의 신비를 담은 암석은 해변을 캔버스 삼아 만든 그대로의 작품으로, 고목 나무의 나이테 같으면서 불쑥불쑥 솟은 꽃송이 같다. 백령·대청지질공원으로 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수직절벽에서 만나는 대청도 바다 04 서풍받이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트레킹 코스 따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서풍받이를 향해 걷다 쪽빛 바다와 하늘을 만났다면, 그 자체로 힐링이 된다. 고도 약 100m의 하얀 규암이 웅장한 수직절벽을 이루고 있다. 데크에 서서 좌우를 보면 아름다운 절경에 탄성이 절로난다.

04



소청도

하얗게 분칠한 아리따운 얼굴

05 분바위

밤이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난다. 그래서 '월띠'라 불렸다. 등대가 없던 시절에는 멀리서 분바위를 보고 뱃길을 찾았다. 석회암 대리석이 해식작용에 의해 드러난 것으로, 분바위 아래에는 홍합이 지천에 깔려 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분바위 주변으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분포해 있다. 약 35억년 전의 남조류 등에 의해 생성되는 화석으로 태고의 신비가 느껴진다.



05



1908년 이후 지금까지
서해5도를 밝히다

06 소청도등대

푸른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 같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등대 역할을 하지만, 낮 풍경은 사뭇 다르다. 사방이 하늘과 바다로 탁 트여있고, 선 굵은 해안선 따라 분바위가 보인다.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면 대청도가 달려오듯 다가선다.

06

홍어 요리

홍어하면 흑산도를 떠올리지만, 대청도 앞 바다에서 더 많이 잡힌다. 대청도에서는 주로 생물로 회나 찜, 탕, 튀김으로 많이 먹는다. 산지이기에 가격도 싸다. 묵은 김치를 넣어 칼칼하게 끓인 홍어애탕은 산지에서 즐길 수 있는 호사이다.



분단의 아픔을 마음에 안고 평화를 노래하는 연평도

북한 부포리와 10km 거리에 있는 서해 최대의 어항, 연평도. 과거 우리나라 최고의 조기어장으로 조기파시로 명성이 자자하던 섬이었다. 북한과 가까운 탓에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분단의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연평도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평화의 섬으로 변화하고 있다.



01

이제 이런 아픔은 그만!

01 연평도 안보교육장

2010년 북한의 포격으로 파괴된 건물을 기초로 안보교육장을 세웠다.

포격 당시, 연평리 일대의 피해 상황과 포격 사건에 대한 콘텐츠가 전시되어 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지를 실감케 만든다.

📍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12번길 25

☎ 032-832-3450





02

평화를 위해 돌아가신 이들을 기리며

02 평화공원

평화에 대한 열망 때문일까, 이름도 평화공원이다. 실제 추모공원으로 연평해전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 각종 전시물을 보고 있으면, 다시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마음으로 바라게 된다.

“연평바다로 돈 실러 가세”

03 조기역사관

조기파시가 열릴 정도로 조기가 많이 잡혔던 연평도의 역사를 담고 있다. 구한말에는 조기를 잡기 위해 연평 바다에 전국에서 300여 척이나 몰려왔다고 한다. 연평도풍어제와 임경업 장군 이야기, 조기파시 등 과거 풍요로운 연평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 연평면 연평로682번길 83



03

04



여기라면 한참을 머물러도 좋다

04 병풍바위·가래칠기 해변

조기역사관에서 북서쪽을 바라보면 바로 보인다. 연평도의 절경 중 하나로, 바다와 바다 사이를 파도, 바람, 세월이 바위를 병풍처럼 길게 만들어 놓았다. 그 앞으로 펼쳐져 있는 가래칠기 해변에 내려서면 바닷물이 ‘차르륵 차르륵’ 해변을 감싸고돈다.

두고 온 고향을 그리며
세운 전망대



06 망향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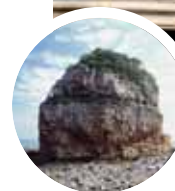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망향전망대까지는 꽤 많은 계단을 올라야 한다. 드디어 눈앞에 보이는 북한. 먹먹한 마음이 전해진다. 고향을 그리며 제사를 지내는 피난민들의 바람이 바다 건너까지 전해지는 듯하다.

아이스크림 바위

망향전망대에서 해안가로 내려가면 아이스크림 바위가 있다. 추운 겨울눈과 바닷물이 얼어붙은 아이스크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06



일몰 하나만으로도
넉넉해지는 바다



05 구리동해변

북녘을 향해 길게 늘어선 해변으로 탄탄하고 고운 모래가 1km 가까이 펼쳐져 있다.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해변을 가로막고 있다. 아스라이 보이는 북녘 하늘로 평화로운 낙조가 찾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05



연평도
먹거리

꽃게

조기가 떠난 자리를 꽃게가 대신하였다. 연평도 어민들의 주업은 꽃게잡이다. 그만큼 씨알이 굵고 맛이 좋다. 제철에 연평도를 방문했다면 무조건 맛봐야 한다.

